

시전(市廛)에서 상점(商店)으로*

-광고를 통해 본 근대 초기 상점의 변화 양상 (1890-1910)-

이 유 정**

목 차

- I. 들어가며
- II. 근대 초기 외래품의 수입과 잡화점의 출현
- III. 근대 상점의 출현
- IV. 외래품과 근대 초기 소비문화
- V. 나가며

국문초록 | 이 논문은 1890년~1910년 사이에 소비되고 있던 외래품의 현황과 이러한 외래품의 유입으로 달라진 근대 초기 조선 상점의 변화 양상과 소비문화의 변화를 살펴본다. 개항 이후 조선의 시장은 전통적 시전(市廛)의 형태에서 점차 근대적 상점(商店)으로의 변화를 겪게 된다. 시전의 외적인 건축 형태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이 시기의 조선 시장은 간판도 광고도 없는 종로 거리의 전(廛), 전방(廛房) 혹은 점방(店房)이라고 불리는 상호와 가게에서 근대 상점(商店)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모습을 드러낸다. 이 논문은 근대식 소비문화로의 전환을 살펴보기 위하여, 당시 새롭게 등장하는 근대적 개념의 상점 모습, 특히 상점의 판매 품목, 규모, 성격의 변화에 주목한다. 조선의 시장에는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7S1A6A3A01079581).

** 李侑靜,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HK교수, via767@gmail.com
투고일: 2020. 10. 30. 심사완료일: 2020. 12. 5. 게재확정일: 2020. 12. 8.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0.39..93>

기술적인 환경의 변화과 경제적인 구조의 변화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소비되는 토산품뿐만 아니라 외래품을 취급하는 잡화점이 나타난다. 당시 근대 신문 광고에 나타나는 근대 상점의 주요 판매 품목과 변화 양상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을 근대 초기 조선의 소비문화를 살펴본다.

핵심어 | 근대 초기, 근대 상점, 외래품, 소비문화, 물질문화

I. 들어가며

이 논문은 근대 초기 소비되고 있던 외래품의 현황과 이러한 외래품의 유입으로 달라진 당시 서울 상점의 변화 양상과 소비문화의 변화를 살펴본다.¹⁾ 개항이후 조선의 시장은 전통적 시전(市廛)의 형태에서 점차 근대적 상점(商店)으로의 변화를 겪게 된다. 시전의 외적인 건축 형태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1876년 이후 일본에 이어 미국, 영국, 독일 등과의 통상조약체결은 국내 교역 중심 혹은 중국 점령지대로 국한되어 있던 교역의 형태를 국외 무역의 형태로 확장시켰다. 서서히 개항지를 중심으로 각종 근대물품, 개화물품, 외래품이 조선에 수입되면서 조선 시장에서는 수입 면직물, 곡물, 석탄, 석유, 각종 수입 원료, 수입 기계, 수입 잡화, 수입 생활용품들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기 시작했고, 기존의 전통적인 시장 모습과 동시에 새로운 근대 상점의 형태가 공존하는 과도기적인 색채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개항

1) 이 논문에서는 1910년 이후 일제식민지 시기에 근대물품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이전, 근대 초기 조선의 물질문화, 소비문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1890년대와 1900년대에 주목하고 있다. 1890년대를 시작으로 그 시기를 한정하고 있는 것은 개항 이후 20여 년 동안의 변화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 논문에서 근대 상점의 변화 양상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1890년대에서 1900년대 발행되고 있던 근대 신문과 잡지의 광고(『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임을 밝혀둔다.

과 함께 자본주의 소비사회로 진입한 조선의 시장은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가 말하는 사용가치의 소비를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넘어 상품에 부착된 행복, 안락함, 성공, 권력, 근대성 등의 의미를 함께 소비하는 사회로 변모하는 양상을 드러낸다.²⁾

근대 초기 연구는 개항지 연구나 도시문화사, 근대 광고학, 근대 어문학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온 반면 당시 소비문화에 대한 연구는 다소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현재 진행되어온 근대 소비문화연구의 대부분은 식민지시기와 해방 이후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과 소비 담론의 관계성 맥락에서 진행되어온 경향이 있다.³⁾ 물론 외국 공사관, 외국인 거류지, 관공서, 서양식 호텔, 서양식 교육기관과 같은 개화기 근대 건축양식에 관한 연구, 혹은 근대매체에 새롭게 등장하는 개화기 광고 연구, 그리고 이 시기에 등장하는 담배, 약, 대한제국 황실 제복과 같은 근대식 의복, 커피, 설탕의 소비와 같은 특정한 근대 물질문화와 소비문화에 관한 연구 성과들이 건축학, 의상학, 약학, 식품영양학, 광고학, 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⁴⁾ 그러나 근대 소비문화의 전환점으로서의 19세기 말과 20세

2) 장 보드리야르,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문예출판사, 1992.
 3) 정인숙, 「조선후기 도시의 발달과 여성의 소비문화에 대한 담론의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2012, 221~258쪽; 하여주, 「17~18세기 조선 여성의 소비 규범과 소비욕망-新婦 머리 모양[加髻]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2, 2015, 195~227쪽; 손정숙, 「일제시기 백화점과 일상소비문화」, 『동양고전연구』 25, 237~260쪽; 김윤선, 「근대 여성 매체 『신여성』에 나타난 여성의 소비문화」, 『동양학』 45, 2009, 41~62쪽; 김미선, 「1950~1960년대 여성의 소비문화와 명동(明洞)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 양장점과 미장원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46, 2012, 59~101쪽.
 4) 김연옥, 「남대문로의 성격과 그 기능 변천에 관한 연구, 1876-1945: 물리적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9, 2002, 101~160쪽; 조은주, 「경성부 남대문통과 태평동의 이중한옥상가에 관한 연구」, 『서울학연구』 30, 2008, 99~138쪽; 김태영, 「구한말 외인건축술의 전래과정 연구」, 『건축역사연구』 1-1, 1992, 117~128쪽; 김정인, 「개화기 서울에서 양식적 건축 요소를 차용한 절충적 한옥의 입면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3, 2015, 11~24쪽; 이가연, 「개항장 부산 일본 거류지의

기 초, 즉 서구식 소비문화를 지향하는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전환점으로서의 근대 초기를 조명하는 연구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이루어 온 기존의 개항기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개항 이후 외래품의 급증으로 근대 초 조선에 나타나는 소비문화의 변화, 특히 근대적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당시 서울 종로 상점의 모습을 통해 소비문화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서구식 소비문화로 전환하고 있었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선에 상점이라는 근대적 공간이 출현하게 되는 과정과 이곳의 판매 품목, 규모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서구식 소비문화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던 산업혁명, 기술혁명의 결과로 의식주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던 대량 생산의 근대물품 소비를 의미한다. 근대 초기 조선은 이러한 자본 사회의 물질혁명으로 인한 소비문화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 우선 조선인 사회에 새롭게 유입되는 서구물품, 근대물품, 외래품의 품목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당시 조선 시장의 모습, 판매 물품 등 조선인의 생활양식들을 비교적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서양인들의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수출입 품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조선통감부통계』, 러시아대장성의 『한국지』를 활용하였으며, 그리고 근대 초기 여러 상점의 종류와 판매 품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대 신문의 광고면, 특히 『독립신문』(국문판, 영문판), 『황성신문』, 『제국신

소비공간과 소비문화, 『항도부산』 39, 2020, 79~106쪽; 이두원, 김은희, 「한국근대 소비문화 변천사 연구: 근대신문광고(1886-1949)에 나타난 소비가치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15-3, 2004, 207~234쪽; 이영학, 「조선후기 담배의 급속한 보급과 사회적 영향」, 『역사문화연구』 22, 2005, 55~86쪽; 임경희, 「‘일신상점’ 자료를 통해서 본 20세기 농촌소상인의 변화」, 『담론201』 18-2, 2015, 93~111쪽; 김미성, 『조선후기 면주전과 명주 생산, 유통구조』,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김순영, 「한국 근대 양복점의 판매 물품과 생산 및 판매 주체」,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7-5, 2017, 89~107쪽; 주승재, 주경식, 「한국 약사제도의 변천」, 『약학회지』 58-6, 2014, 405~412쪽.

문』, 『대한매일신보』(국한문 혼용판, 영문판)에서 상점의 종류와 품목들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시장, 상점, 시전 거리 등의 외형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수의 근대 초기 사진집을 참고하였다.⁵⁾

II. 근대 초기 외래품의 수입과 잡화점의 등장

근대 초기 조선을 방문하거나 거주했던 서양인들의 기록이나 사진에는 당시 조선 시장과 상점의 모습, 판매물품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어, 개항 이후 서서히 변화하고 있던 조선 시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인용문은 W. R. 칼스(W. R. Carles)가 1888년에 작성한 『조선풍물지』(Life in Corea)의 일부로 1880년대 서울 종로 시전의 종각 근처 큰길 교차로에 있는 가게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 가게들 가운데 몇 군데는 석조 이층 건물이었고 나머지는 낮은 건물로 칸이 나뉘었으며 정면은 각기 6피트 정도로서 안마당의 가장 자리는 둥그스름했다. 건물의 칸마다 거의 동일한 상품들이 진열되어있고 그 작은 상점들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몰랐다. 주인이 자리 잡고 앉은 자리는 너무

5) 러시아가 1900년 조선을 연구하고 보고한 『한국지』(원명 코레아, 노문) 문헌의 경우, 그 일부를 김병린이가 번역한 <러시아대장성 편, 김병린 역, 『구한말의 사회와 경제』, 유평출판사, 1983>을 활용하였다. 참고한 사진집은 다음과 같다. 우라카와 가즈야 엮음, 박호원, 임유희, 이에나가 유코 역, 『그림엽서로 보는 근대조선 1-7권』, 민속원, 2017; 이돈수, 이순우, 『꼬레아 에 꼬레아니: 100년 전 서울 주재 이탈리아 외교관 카를로 로제티의 대한제국 견문기 사진해설판』, 하늘재, 2009; 박도 엮음, 『개화기와 대한제국: 1876-1910』, 눈빛, 2012; 양상현, 유영미,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사진: 윌리엄 그리피스, 럿거스대학교 도서관 특별컬렉션』, 눈빛, 2019; 최석로, 『민족의 사진첩 IV. 개화기의 생활과 풍속』, 서문당, 2007; 송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서양인이 본 근대전환기 한국, 한국인: 영천 강정훈 기증문고를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2.

작아서 일어날 필요도 없이 모든 물건이 그의 손에 닿는 곳에 있었다...이 곳에서 유행하는 것 가운데에는 종이부채와 은세공품인 약병, 베개 그리고 수놓은 베갯잇, 밥그릇, 타구, 촛대, 광택이 잘 나는 청동 제품의 가재도구 등이 있었다. 촛대는 미끄러지는 듯한 접시처럼 신기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한쪽 면 위에는 흠이 파여 있어 외풍을 차단하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널따란 길에는 노점상이 줄지어 있고 그 가운데 곡물가게가 가장 눈에 띄었다. 과일 노점상에는 배, 사과, 견과류, 옥수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린 곳감, 밤, 버섯 그리고 김을 팔았다. 그러나 담배와 담뱃대가 가장 잘 팔릴 뿐만 아니라 가장 많았다.⁶⁾

위 묘사는 종로에서 물건을 벌여 놓고 파는 상설 시장인 시전 상점을 묘사하고 있는데, 작성 당시 시전 거리에 “석조 이층 건물”이 지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이 전통적인 시전의 형태인 단층 건물이었지만, 소수이더라도 근대적인 건축 형태로 개조한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화기 건축을 연구하고 있는 김정인에 따르면, 근대 초기에는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도성 내 대로변(당시 종로와 남대문로를 연결하는 3방향의 도로) 상가도 건축적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육주비전이 있던 운중가(지금의 종로 사거리)와 남대문로에서는 건물의 벽을 조적으로 쌓아 올리거나 벽의 전면을 회반죽으로 마무리한 형태가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⁷⁾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시전 거리에 들어선 잡화점(雜貨店)의 묘사이다.⁸⁾ 사실 위의 인용문에서 “건물의 칸마다 거의 동일한 상품

6) W.R. 칼스 지음, 신복룡 역, 『조선풍물지』, 집문당, 2019[1999], 26쪽, 28쪽.

7) 김정인, 앞의 논문, 2015, 18쪽.

8) 이 논문은 19세기 말 물질혁명, 유통혁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던 잡화점 (general store)의 출현이라는 맥락에서 근대 초기 조선의 상점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북미 잡화점 등장과 관련하여 다음 서적 참고. English, Linda, *By All Accounts: General Stores and Community Life in Texas and Indian*

들이 진열되어있다”는 표현의 의미가 불명확한데, 한 곳의 시전에서 ‘종이부채, 약병, 베개, 베갯잇, 밥그릇, 타구, 촛대, 청동 가재도구’를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각각의 시전이 각 한 품목의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인지의 구별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전통적인 시전 형태의 변화 여부와 전통 시전 안에서 소위 ‘잡화점’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전통적으로 시전에서는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 중 한 가지 부류의 상품만을 판매하도록 허용되었다. 시전의 상인들 사이에서는 상품의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전매조합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합은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되었고, 특정 상품을 도매할 수 있는 것은 전매조합 회원만이 할 수 있었다.⁹⁾ 예를 들면, 하나의 전매조합이 백색견직물을 판매하면, 다른 전매조합에서는 각각 염색직물, 면직물, 혹은 무늬가 있는 직물 등의 특정 상품만을 판매함으로써 그 품목이 구분되게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종이류인 서화지나 제지품을 파는 곳, 염료, 모자, 머리장식물, 목재, 철재 및 청동제품, 쌀 등을 판매하는 조합도 독립적으로 존재했다.¹⁰⁾ 이 외에도 접시, 대야, 찻잔, 촛대 등 놋쇠 제품을 파는 곳, 모피, 가죽, 신발 등을 판매하는 곳, 식료품을 판매하는 곳 등이 있었다.¹¹⁾ 그 중에서도 도성 내의 일반인들에게 일상용품도 공급했지만 관청, 궁궐에 물품을 공급하는 시전이 17세기에는 30여개였던 것이 18세기 말에는 120여개로 늘어났다고 하니, 19세기 말에 그 수가 훨씬 증가했을 것이다.¹²⁾ 시전 거리에는 이렇듯 정부에 물품을 공급하는

Territory, Oklahoma: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2013.

- 9) 전우용, 『한국 회사의 탄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국사편찬위원회, 『장사에서 마트까지 근 현대 시장 경제의 변천』, 두산동아, 2007.
- 10) 러시아대장성 편, 김병린 역, 앞의 책, 1983, 172쪽.
- 11) 러시아대장성 편, 김병린 역, 앞의 책, 1983, 177쪽.
- 12) 송기호, 『농사짓고 장사하고: 생업과 행정』,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송기호, 「시전과 장시」, 『문화·예술(역사이야기)』 60-12, 2012, 82~90쪽.

큰 규모의 시전과 작은 영세 시전의 구분이 있었지만, 아래 <그림 1~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곳의 시전에서 한 품목의 상품—그림 왼쪽부터 바구니, 철물, 옹기, 유기, 어물—을 팔고 있었고, 또 그 동일한 품목을 파는 가게들이 여러 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4> 개화기 조선 시전 상설시장의 모습

칼스가 『조선풍물지』를 작성했던 1888년으로부터 10여년이 흐른 후에 이사벨라 비숍(Isabella Bird Bishop)이 작성한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에도 조선의 시장을 소개하는 부분이 등장한다. 여기에서 비숍은 “서울의 ‘구색을 갖춘 일용 잡화’ 판매점을 묘사하며 “이 나라의 모든 상점의 표본 (A Seoul shop of “assorted notions” represents the shop of every country town)”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¹³⁾ 다음 인용문은 비숍이 종로 시전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거대한 종각 가까이에 있는 상점에 대한 묘사인데, 나열하는 다수의 상품 품목을 보면 아마도 잡화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숍이 언급하는 이 상점의 판매 품목은 “흰 솜, 짚신, 샷갓, 조악한 도기, 바람막이가 달린 촛대, 빗, 유리구슬, 담뱃대, 담배쌈지, 타구, 관리들이 애용하는 빨데 안경, 온갖 종류의 종이, 목침, 베갯잇, 부채, 떡물 통, 푸른 가죽 덮개 장식에 은으로 장식한 커다란 말안장, 빨랫방망이, 꽃감, 자홍색·진홍색·푸른색 물감을 들인 싸구려 사탕, 말린 해초와 버섯, 좋지 못한 선택의 수집품인 6페니 짜리 등유 램프, 손거울, 금은 장식의 향아리” 등으로, 그에 따르면 이러한 “싸구려 물품들”이 바로 조선 사람들에게 당시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었다고 전한다.¹⁴⁾

여기서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보면, 1890년대 말이 되면 조선의 시전 거리에 ‘잡화점’(general store)이라고 하는 형태의 새로운 상점이 들어서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8>은 당시 잡화를 팔고 있는 시전 점포와 노점의 모습이다. 옆서 사진으로 보이는 <그림 5>의 상단 왼쪽에는 “The Department Store of Korea 잡화점 (조선 상점)”이라는 제목의 소개 문구가 들어있다. 이 사진에는 두 개의 상점이 나란히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왼쪽은 경대, 거울, 가위, 안경과 같은 물건들, 오른쪽에는 지필묵 등 문구류와 고급신인 가죽신을 놓고 판매하고 있다. <그림 6>의 잡화점에서는 더 다양한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부채, 양산, 우산, 양재기, 등유램프, 농기구 등의 국내물품과 외국물품이 여러 가지 섞여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3) I.B.비숍, 신복룡 역,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2019[1999], 52쪽, 59쪽.

14) I.B.비숍, 신복룡 역, 위의 책, 33쪽.



<그림 5, 6> 개화기 조선 시전거리의 잡화점 모습

이런 잡화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외래품의 판매이다. 여러 서양인의 기록에 따르면, 상설 시장이든 정기 시장이든 한국의 '토산품'뿐만 아니라 '외국상품'도 판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는 러시아대장성의 『한국지』에서 당시 조선의 시장의 모습을 기록한 부분이다.

정기시장에서는 토산품뿐만 아니라 외국상품도 팔고 있었다. 토산품으로는 주로 과일이 출품되었다. 예를 들면 살구, 보통의 탐스러운 복숭아가 그것이다. 그리고 연어와 건어, 잎담배, 명석에 널려 있거나 부대에 들어있는 대맥(보리쌀), 여러 가지 품질의 쌀, 콩과 수수, 숯, 무쇠단지와 술, 토산품인 면포와 풀 섬유로 만든 직물, 버드나무가지로 엮어 만든 광주리와 농, 은가락지, 머리핀과 여러 가지의 장신구, 짚신과 대마로 만든 신, 여러 가지 모양의 잣과 기타 보잘 것 없는 물건들이 출품되었다. 외국상품으로서 들어야 할 것은 회색 모직물, 상급의 마포, 수건, 바늘, 일본제 성냥, 거울, 통에 든 베를린 청색물감과 병에 든 아닐린 염료, 싸구려 칼, 세멘시나의 씨로 만든 정제약 (이것과 염료와 바늘은 독일제), 리본, 끈, 시가렛(cigarette)과 니스 칠한 담배파이프(일본제), 싸구려 비누와 맨체스터에서 만든 약간의 물품이다.¹⁵⁾

잡화를 판매하고 있는 것은 상설시장인 시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위에서 언급된 칼스의 『조선풍물지』에도 “닐다란 길에 노점상이 줄지어 있었다”라고 기록한 부분이 나오는데, 보통 작은 규모의 소매상이나 무허가 상인들의 난전(亂廛) 형태로 운영이 되던 가게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전매조합에서 대어주는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보통 셋집으로 된 지붕 아래 보통 두 칸으로 나누어진 건물에서, 앞 칸은 열여 팔 물건들을 진열해 놓고 있었다. 통상 추운 겨울에는 뒷 칸 방에 주인이 앉아 벽에 있는 창문으로 물건들을 내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시전은 정면 2칸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었는데, 2칸 공간은 각각 반씩 나누어 온돌방과 마루, 온돌방과 창고로 만들어졌다. 주인은 온돌방에서 기거하면서 마루에 진열한 물건을 팔았고, 나머지 물건은 창고에 쌓아두었다고 한다.¹⁵⁾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러한 소매상들이 판매하고 있던 상품은 그 품목이 거의 같았는데, “토산 담배, 기다란 담뱃대, 여자용 머리핀, 작은 거울, 나무빗, 칼” 등이 판매되고 있었다.¹⁶⁾ 서양인들은 이러한 물건들을 보잘 것 없는 상품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런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일본 성냥 10-20개비 그리고 숯은 2-3개 정도”만을 살 정도로 모두 가난했다고 기록한다. 서양인의 시선에 이러한 조선의 상점은 초라한 도시의 일반적인 모습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그가 보기에 물건 값을 모두 합쳐 봐야 “6달러 가치 정도인” 상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전하며, 조선의 상점을 “주목할 것(상품)이 없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¹⁷⁾

이렇게 소매상인들이나 혹은 행상인이 나와서 파는 노점상의 물건들은, 예를 들어 “종이, 허리끈, 구두, 향, 단추, 작은 거울, 담배지갑, 빗, 바지끈, 길고 짧은 담뱃대, 사발, 조잡하게 유약을 바른 오지그릇, 밥그릇, 일본제

15) 러시아대장성 편, 김병린 역, 앞의 책, 1983, 184쪽.

16) 송기호, 앞의 책, 2014, 82~90쪽; 송기호, 앞의 논문, 2012, 82쪽.

17) 러시아대장성 편, 김병린 역, 앞의 책, 1983, 184쪽.

18) I.B.비숍, 신복룡 역, 앞의 책, 2019[1999], 33쪽.

딱성냥, 아닐린 물감, 담배쌈지, 돈주머니, 여러 색깔의 형겔으로 만든 주머니, 두루마리 기름종이, 장식 술, 비단 끈, 쌀, 기장, 수수, 완두콩, 콩, 짚신, 넓고 뺏뺏한 천으로 만든 모자, 온갖 모양의 샷갓, 그리고 올이 성글고 폭이 매우 좁은 면포” 등, 낮은 결상이나 명석 위에 진열된 채 판매되고 있다고 묘사한다.¹⁹⁾



<그림 7, 8> 개화기 조선 시전거리의 노점상 모습

이러한 외국상품의 판매는 서울의 시전 거리에서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었다. 평양, 원산, 부산 등 개항지의 시장에서는 이러한 수입품의 판매가 낫선 것이 아니었다. 『조선풍물지』를 기록한 W. R. 칼스는 원산 가게에는 “물고기와 해초, 삼베옷과 종이, 곡류 이외에도 와이셔츠 감, 한랭사(寒冷紗), 아닐린 염료(합성물감), 바늘, 성냥, 등유 등의 외국 상품들이 많이 있다” 고 적고 있다.²⁰⁾ 마찬가지로 주요 개항지를 방문하고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W. E. 그리피스의 『은자의 나라』(1907)에도 부산과 원산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국상품이 언급된다. 아마도 해당 내용은 1882~83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에 내지인 서울 중심의 시장보다도 오히려 해외 선박이

19) I.B.비숍, 신복룡 역, 앞의 책, 2019[1999], 34쪽.

20) W.R. 칼스 지음, 신복룡 역, 『조선풍물지』, 집문당, 2019[1999], 196쪽.

드나들었던 개항장 부산과 원산에서 외국물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1876년 공식적으로 일반 외국 무역에 개방되었던 부산에서도 서구의 외래품이 눈에 띄게 거래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1883년에 1500여명이었던 부산의 외국인 인구는 1897년에 5,564명으로 급증하였고, 그리고 수입 상품의 약 1/3은 사람과 말의 등에 실려 내륙으로 운송되고 있었다고 한다.²¹⁾ 이들 외국인의 대부분이 일본인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당시 일본 상인을 통해서 서양 수입품이 유통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에서 상호 접촉을 한 지 6년이 지난 후, 개항 이후 외국인들로 말미암아 일본인들이 골치를 썩인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 사람들도 애로점이 많았지만, 어쨌든 그들은 자기 나라를 틀림없이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통상을 위해 이제까지 터득한 경험에 따라서 일본인들과의 관계를 참고 견뎠다. 조선 사람들은 면제품, 생철, 유리, 염료, 기구, 기계, 과중시계, 손목시계, 석유, 밀가루, 철기, 철, 그릇, 그리고 외제 장난감 등을 구입했다.”²²⁾

원산은 1880년 5월 1일에 개항되었다. 토지가 비옥한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원산은 두 개의 대로가 관통하고 있고 주변에는 모피 산지가 있으며 전면에는 훌륭한 항구가 위치하고 있어 무역지로서 전망이 밝다. 몇몇 당당한 공공건물이 들어서 있는 일본 조계는 약 42에이커 정도이다. 이곳에는 일본, 유럽, 미국 제품의 전시장이 있으며, 2만 5천 명의 조선 사람들이 이를 관람했다. 이 전시장의 목적은 조선 사람을 개명시키고 그들의 주머니를 우려내는 데 있다. (이곳) 판매량의 1/26은 일본 제품이며, 그 밖의 대부분은 면제품과 ‘잡화’로서 외국산이거나 유럽산이다.²³⁾

21) I.B.비숍, 신복룡 역, 앞의 책, 2019[1999], 14~15쪽.

22) 양상현, 유영미, 앞의 책, 2019, 597쪽.

23) 양상현, 유영미, 앞의 책, 2019, 598쪽.

요약하면, 19세기 말 미국과 유사한 형태로 개항 이후 조선의 시장에서도 기술적인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구조의 변화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소비되는 토산품뿐만 아니라 외래품을 취급하는 잡화점이라는 형태의 점포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개항 이전과는 달라진 형태의 근대식 상점으로서의 변화를 서서히 이루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위의 1880년대 중반부터 1890년대 후반의 모습을 묘사한 서양인의 기록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당시 조선 시장은 ‘보잘것없는’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있는 수준으로, 조선의 상점들은 여전히 서양인을 조선(상점)으로 이끄는 매력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고 적고 있다.²⁴⁾ 비숍에 따르면 같은 시기 중국과 일본에는 서양인들에게 필요한 외국 상품의 대부분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이 많이 있었던 것에 비해 조선에는 외국인이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조선인이 운영하는 잡화점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1900년대가 되면서 점차 달라지기 시작한다.

III. 근대 상점의 주요 품목 및 변화 양상

1900년대로 넘어가면서 조선의 시장 거리에 상점(商店)이라는 신조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00년대 초반 하더라도 종로의 거리는 간판이란 존재도 없었다. 개항 이후 ‘상점’이란 외래어가 진고개를 중심으로 한 일본인 거류지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간판도 광고도 없는 종로 거리의 전(廛), 전방(廛房) 혹은 점방(店房)이라고 불리는 상호와 가게의 형태에도 변화가 나타난다.²⁵⁾ 즉 1890년대 말에 이르면 개항으로

24) I.B.비숍, 신복룡 역, 앞의 책, 2019[1999], 33쪽, 168~169쪽.

25) 『동아일보』 1934년 1월 1일자 21면 “조선인상업의 성쇠上” 참조. “삼십여년전만 하야도 종격의 거리는 간판이란 존재도 없었다. 그러나 간판이 없고 광고가 없는 거기에도 상업의 실미가 잇었고, 이익이 잇었다. 상점이란 외래문자를 듣지 못한

시작된 외국과의 교역이 증가하고, 민간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국가로부터 특정 상품의 판매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 받았던 시전 상인들도 점점 사라지게 된다. 1880년대 초반부터 정부 주도로 설립된 기기국, 직조국, 광무국, 박문국은 대개 회사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대동상회(1883), 의신회사(1884)처럼 상회, 회사의 명칭을 내건 민간 상공업자들도 출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회, 회사의 형태는 보통 조선 후기 업종별로 조직된 서울 시전 상인들이 취급 물종별로 전매조합을 형성하고 있던 것을 대개 기존의 상업조직을 재편하거나 명칭만 ‘회사’로 바꾼 경우가 많았다.²⁶⁾ 실제로 이 시기 근대 신문에는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울 종로, 남대문을 중심으로 ‘상회’, ‘상전’, ‘상점’, ‘회사’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개항 이후 외국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던 외국인 상점과 외래품 수입의 증가는 조선의 전통적인 시전의 구조를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1897년 조선에 있는 영국인 수는 65명이며, 서울과 제물포에 흩어져있는 중국인의 수는 2,500여명, 외국인인 11,318명, 외국 무역 회사가 266개, 일본 거주민은 10,711명, 일본인의

그때 ‘진고개’를 중심한 일본인거류지에 상점이란 상표가 나타났을 때 종로 거기에 는 전이란 상호가 엄연히 쇄국주의를 말하고 있었다.” 이외 참고 자료로는 신인섭, 서범석, 『한국광고사』, 나남출판, 1986; 신인섭 외, 『한국옥외광고사』, 한경사, 2020.

26) 회사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을 붙이는 데에 제한이 없었다. 주식회사의 형태이면서 단지 상회로 칭하거나 개인 업체이면서 회사를 자처하기도 하였다. 회사란 엄밀한 의미에서 법인격을 갖는 합자조직만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상인들의 공인된 결사체 역시 회사로 통일되었고, 정부에서 외국 영사들의 항의를 피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징세 업무만을 맡기는 경우도 있었다. 회사란 명칭에 이렇듯 잡다한 기능이 부여된 것은 조선 후기 상공업에서 관행이 되었던 전매조합 등의 조직이 회사라는 외래 명칭을 차용한 사정과도 관련이 있다. 이들이 근대적 회사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내재된 상관습의 변화가 필요했다. 전우용, 앞의 책, 2011, 36~37쪽, 108쪽.

회사는 230개에 이르렀다.²⁷⁾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5,564명이나 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다른 주요 개항지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개항하고 10여년이 지난 1887년경 이미 서울 일본인 거주지에서는 일본인 상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²⁸⁾ 이러한 일본인 상점들은 초기 일본군을 상대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들어온 상인들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1880년 말 경에는 조선인을 상대로 장사를 벌이기 시작한 상점이 50여 호를 넘어설 정도로 규모가 확장되었다.²⁹⁾ 주목할 부분은 이곳 일본인 거주지 진고개(본정)에 위치한 일본 상점의 대부분은 서양 잡화를 판매하는 상점이었다는 것이다.³⁰⁾ 마찬가지로 서양인 거주지인 정동 주변에는 서울호텔(Seoul Hotel, 1897-99), 팔레호텔(Hotel du Palais, 1901-09), 임페리얼호텔(Imperial Hotel, 1903-04), 스테이션호텔(Station Hotel, 1901-1905), 손탁호텔(Sontaq Hotel, 1902-1909)등이 들어서면서 서양인들을 위한 식사와 요리, 커피 등이 제공되었던 식당과 숙박시설이 늘어났고, 그 주변으로 서양식 식자재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호텔 부속 잡화점이 생겨났다.³¹⁾ 또한 정동 지역의 서양인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소수이지만 한국인이 운영하는 상점들도 들어서기 시작했다.³²⁾ 이러한 외래품을 취급하는 잡화점에서는 조선에서는 그동안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갖가지 서구 상품이 들어왔는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산 와인, 샴페인, 맥주, 헤이즐넛, 농축 우유, 각설탕, 건포도, 이집트산 담배, 일본산 광천수, 영국산, 미국산 통조림

27) I.B.비숍, 신복룡 역, 앞의 책, 2019[1999], 10쪽.

28) I.B.비숍, 신복룡 역, 앞의 책, 2019[1999], 14쪽.

29) 박상하, 『한국기업의 성장 100년사』, 경영자료사, 2013, 34쪽.

30) 이연경, 『한성부의 ‘작은 일본’, 진고개 혹은 본정』, 시공문화사, 2015 참조.

31) 이 시기 서양거주지의 상점 목록에 대하여 다음 논문 참조. 이유정, 「1890년대 미국인의 조선에서의 ‘집’(Home) 만들기」, 『미국사연구』 51, 2020, 177~218쪽.

32) 『독립신문』 국문과 영문판 광고면에 등장하는 정동에 위치한 소수의 상점-예를 들어, ‘서울식물회사(Seoul Grocery Company)’-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유일한 상점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준비했다.³³⁾

일본인 상권이 확장되면서 서울에서 종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시장 거리는 이제 진고개와 그리고 남대문 지역으로 그 중심이 변화해감에 따라, 종로를 중심으로 서울의 상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전통적 전방(廩房)의 조선인 상인들도 근대적 상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게 된다. 이 시기 근대 신문 광고를 살펴보면, ‘전방’, ‘점방’, ‘잡화전’, ‘상회’, ‘상점’, ‘회사’ 등 다양한 명칭들의 혼재하고 있는 현상도 전통적인 형태에서 근대적 개념의 상업형태로 변화하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회사의 명칭에 있어서도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회사 명칭이 쓰이고 있는 것을 전우용은 당시 회사법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란 명칭을 붙이는데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조선 후기 상공업의 내재적 조직의 형태에는 변화 없이 주식회사의 형태이면서 단지 상회로 칭하거나, 개인 업체이면서 회사를 자처하기도 하는 등 근대적 상업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있지 않았기 때문이다.³⁴⁾ 물론 단순히 명칭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일본, 서양인 외국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명동과 정동으로 점점 넘어간 상권을 다시 회복하고자, 종로 시전에서는 외래품, 수입 잡화를 취급하는 상점이 들어서고 있었다. 1900년대에는 정동, 진고개 등 외국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서양 가구, 서양 잡화 등을 취급하는 외국인 상점처럼, 종로 주변의 조선인 상점에서도 그 판매 품목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인이 운영하는 기존의 상권인 종로 거리를 중심으로 수입품, 외래품을 취급하는 근대 상점으로 변화를 모색하며, 종로 대광교를 시작으로 남대문으로 확장되는 공간에 박문서관, 천응상점, 정자옥지점, 제생당약방 등 하나 둘씩 조선인 근대 상점이 들어서고 있었던 것을 아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당시 대부분의 수입품은

33) 이유정, 앞의 논문, 2020; 박상하, 앞의 책, 2014, 158쪽.

34) 전우용, 앞의 책, 2011, 36~38쪽.

일본 상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많았고, 1910년 이전으로 진고개 주변으로 일본인 잡화상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190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직거래를 통해 서양 수입품을 들여오고 있는 조선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900년대 발행되고 있던 『제국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미국과 직접 거래하여 (일본인) 중간상인의 거래를 없애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안한다는 형태의 광고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한미흥업주식회사의 경우는 일본 상인들과 일부 외국인 상인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었던 조선의 상권에 대한 회복의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저항의 한 일환으로 그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있다.³⁵⁾

분명한 것은 1900년 서울 종로에서 정동, 진고개,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공간에 다수의 수입 잡화점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수입품을 소비하는 조선인들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 상업 광고를 하고 있는 대개의 상점은 여러 품목을 취급하는 잡화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대다수의 상점에서는 외래품을 취급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들고 보지 못했던 외래품, 개화 물품, 근대 물품이 수입되면서 낮설고 다양한 품목들을 ‘구미잡화’, ‘화양잡화’로 통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1>은 근대 신문광고에서 상점, 상회, 회사 등의 명칭으로 수입 잡화를 취급하는 상점들의 목록을 정리한 표이다.³⁶⁾ 이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잡화를 전문적

35) 다음은 한미흥업주식회사 광고. “특별광고. 본사는 한미 양국인의 자본으로 미국 법률 하에 현금 성립됨을 자에 공중에게 광포하노라, 본사는 대한 제국 전국 내에 성실하고 근간한 인사와 연락하여 경향 각처에 지점을 설치하겠사오니 근실하는 침군자는 본사에 내립하여 면상하시든지 통신으로 협의하심을 무망”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8일). “동포의 위생을 주의하여 미국의서 경험단방으로 류행통용하는 령약성제를 수입하여 좌개광포하오니 유병군자와 약업에 종사하는 침군자는 내립하여...”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10일).

36) 당시 서울에서 조선인들의 서양 수입품 소비문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표에는 상점 주인의 이름 등으로 조선인이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점뿐만 아니라 일본상인, 청국상인이 조선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상점의 경우도 포함시켰다.

으로 취급하는 잡화점은 물론이거니와 식료품, 서적, 지물, 철물 등 특정 품목을 취급하는 상점들의 경우도 특정 상품 이외의 물품들을 갖추고 광고를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면, 독립신문사의 광고에서 ‘누구든지 서양목과 서양사를 각색으로 도매하여 장사하고 싶은 이가 있거든 주문하시오’라는 문구에서 나타나듯이 당시 독립신문사에서는 신문 이외에도 서적, 문구류, 서양목, 서양사와 같이 수요가 많았던 외래품을 판매하고 있었다.³⁷⁾ 마찬가지로 제중원에서도 ‘최상급 금계랍을 미국서 직접’ 들여와서 판매하고 있었고,³⁸⁾ 서책을 판매하고 있던 박문서관에서도 미국의 보익슈(補益水)를 판매하였다.³⁹⁾ 또한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등 내·외국의 각종 서적을 판매하고 있던 옥호서림에서도 각종 서구식 모자 및 의류, 학교용품을 판매하는 식이었다.⁴⁰⁾ 또한 서양 난로와 연통 등 각종 양철 물건을 취급하고 있던 명동의 한 상점은 이후에 유등회사를 설립하여 각종 등을 판매하기도 했다.⁴¹⁾ 부산의 동화약방의 전국 영업장에서는 사람들이 약품을 주문하면서 심심찮게 각종 훈수용품, 문방구, 시계, 축음기, 생활 잡화 등을 서울에서 구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하는 기록과도 일맥상통한다.⁴²⁾ 이러한 상점 판매 품목의 변화는 외래품의 판매방식이나 여러 물품을 함께 취급하는 근대적 상점의 초기 모습이나 상회사의 설립, 확장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구 외래품의 유입과 함께 서서히 변화하고 있던 근대 초기 조선 물질문화의 한 측면을 드러낸다.

37) 『독립신문』, 1897.3.13.
 38) 『황성신문』, 1901.8.21.
 39) 『독립신문』, 1897.05.06.
 40) 『계국신문』, 1902.05.03.
 41) 『황성신문』, 1901.03.05.
 42) 박상하, 앞의 책, 2014, 69쪽.

<표 1> 1896-1910년에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상점 목록

상호	광고 시기	광고출처	위치	판매품목
주식회사	1896	The Independent	종로 광청교 북천변	갓, 신, 옷, 외국 의류, 신발, 가죽상품 만드는 유일한 한국 회사 (양복점)
서울식물회사	1896	The Independent	정동공사관거리 15번지	수입품 및 국내생산 일상용품, 식료품
산일상회	1897	독립신문	진고개, 용산, 재물포	일본산 석탄, 평양산 석탄
창흥 회사	1896	독립신문	중부 장통방 갓전골	각색 철물과 석탄, 등유
원태호계	1902	황성신문	서문 정동	미국제 재봉기계
미동병문	1905	황성신문		미국각색과자, 겨울용모직
대흑옥상점	1905	황성신문	사동 신작로 (중구 무교동)	각색모자, 서양 식재료, 미국산 금은안경테, 학교용품, 군대용품, 양복부속품, 기타 구미잡화
암견상점	1902 1906	제국신문 황성신문	본정5정목	난로연통제조, 미국제 난로(stove)
희다(김광당) 지점	1904	황성신문	경성 이현 16번지 (혜화-종로)	미국제 최신형 회중시계, 과중, 좌중시계, 금은부속품, 금은동 안경테, 각종물품, 각종 최고급 회전차 (다운센도 상회 특약총판, 직수입)
지물포 김성환	1910	황성신문	종로 대광고	직수입 각종 지물, 외국지물(장지, 유장판지, 창호지, 백지, 도배양지, 서화각종, 천정지, 서간지, 봉투지, 학교용품)

유등회사 지재원	1902 1905	제국신문	명동 남서 죽동 9통 11호	각색 양칠, 각색 조선칠, 각색 양철물건, 난로연통, 함석철로 각색 흙과 잠증을 만들고, 유리 유등회사 각종 등 (장명등, 대등, 중등, 소등, 본쳐등 홍여철등)
소다발매소	1902	제국신문 황성신문	황토마루새다 리 남편 벽돌집	
미국싱아 재봉 기계회사 (합통거양행)	1905-1 906	제국신문	경성대안문 옆서소문내 북편 이층집	재봉기계 (재봉사소용, 가중소용), 기계소속품, 바늘과 기름, 기계실
의복상점	1906	제국신문	남서 곤당골 (미동)	의복점
중근상회	1907	대한매일신보 (국한문)	경성 남대문 대리점 & 인천본점	영미국정부전민특허 석유발동기급, 정미기계급부속품
옥호서림	1909	대한매일신보	경성종로 17통9호	국정교과서, 학부 검정교과서, 내외국의 각종서적,
박문서관	1907- 1908	대한매일신보	남대문	미국 약 (방토니물약 보익슈)
광흥상점	1909	대한매일신보	경성남부 죽동22통6호	미국제안경, 송로주 백로주 그 외 각종 화양잡화, 학교용품, 국산, 서양산 연초 각종 대엽가방매
구옥상전	1906	대한매일신보	경성 이현	포도주, 전복, 우유, 서라, 과목 (나무열매 통조림). 맥주, 가배당
곡택양복점	1906	대한매일신보	경성 주동	연미복, 대례복, 군복과 각종 외투
광흥태	1910	대한매일신보	종로 사기전동 21통 5호	사계절 모직 등 각국의 고등품
천응상점	1910	대한매일신보	남서 수표교	각종잡화, 학교용품

각국시계 상조	1910	대한매일신보	경성남부 대광고 측	각종 시계 상품 각종, 기타 부속품
회동서관	1907	대한매일신보	경성남부	각종서적, 문방제구, 학교용품
한양상회	1909- 1910	대한매일신보	경성	각종구미잡화, 양주 식재료, 이집트, 터키 담배, 마부나 및 하바나 담배, 여행용구, 고등문방구, 포 및 부츠류, 모포류, 양복 부속품, 화장품, 실내장 액세서리 모직물류, 비단결포목류, 악기운동기구, 기계류, 건축재료류, 재봉기계류, 서양 가구류, 광산 용구류, 기타 각종 해외 수출품 곡류, 해산물, 질기류, 광산물, 입산물, 약품원료, 대나무제품, 마직물, 가축류, 비료원료, 소가죽 및 조수피류, 고대사기, 기타 각종 종류
정자옥지점	1904	대한매일신보	남대문동	구미 양복 구미최신유행, 영국런던직수입 봄철양복,
수남상회	1910	대한매일신보	종로통 22통 4호	각종 포목 緇 신식 모직 등 제반 의복에 사용되는 상품
광강상회	1909	대한매일신보	경성	
강산연초 상회	1910	대한매일신보	경성남부 갑동	
제생당약방	1909	대한매일신보	남대문 안	침심보명단, 각종 약품 총발행소
화평당	1910	대한매일신보	종로 대광고 19통7호	팔보단, 각종 동서 양약

자혜약방	1904-1908	대한매일신보	종로 만국기독교청 년회관 앞	각종 양약 (말라리아약, 회충약, 독일제 임질환, 청명안약 등) 북미국 박구디비쓰 제약회사 약품 및 각국 금계랍 차석판 인쇄기계와 활판인쇄기계 대설, 활판인쇄물과 각종 서책
공애당 대약방	1909	대한매일신보	종로 대광고	동서양 유명 매약, 양약건재 도매, 각종약구비
리호경	1909	대한매일신보		구전령
서포 양철상	1909	대한매일신보	종로 어물전 칠방로	간판설치, 서양식 건물 페인트 칠 및 유리 설치
염색공 주인 김덕창	1907	대한매일신보	황성종묘월변 중곡	학생모자, 갑호모자, 을호모자, 황갈색 여름모자, 양말, 독일산 분말염색약, 직조기계 및 부속품
중곡염 직공소	1907	대한매일신보	종묘 월변	목포 모직 염색 및 개염 여러 가지 염분
한성염직 회사	1907	대한매일신보		각종 염색
한미홍업 주식회사	1909	대한매일신보		금계랍 일종 (미국제 Davis Painkiller)
한홍직조 회사	1909	대한매일신보	남대문 내 상동 교당전	양말 직조
한미무역 회사	1909	대한매일신보	경성종로817 통	만물 잡화건본, 안경, 신발, 시계, 각종 약품

요약하면, 1900년대 조선인 상점들이 기존 상권 중심지의 기능을 외국인 상점에 빼앗기면서 새로운 근대적인 상업 거리의 형태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적 전방이 종로를 중심으로 서울의 상계를 장악하고 있었을 때는 상점이란 문구와 간판도 없었다. 이 때에는 상인의 수가 정해져 있었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어느 전에 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었으나, 개항 이후 외래품의 수입과 외국인 상점의 유입과 함께 종로에는 “상점이란 문자가 나타났고 종래의 전방과는 소양지판의 진열광고 등”이 나타났다. 표면적으로 상점을 모방하고는 있었으나 “외래의 대량상품에 일반 소비층은 박래품(舶來品)으로써 환영하게 되고 조선산의 토산은 일절 배격”당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아, 당시 조선 사회에서 구미잡화, 화양잡화 등의 외래품을 선호하고 있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⁴³⁾ 이처럼 조선의 상점에서는 토산품과 함께 외래 수입품을 함께 취급하는 상점으로 변화하고 있었고, 이것은 바로 개화기 조선의 물질문화와 소비문화의 변화를 의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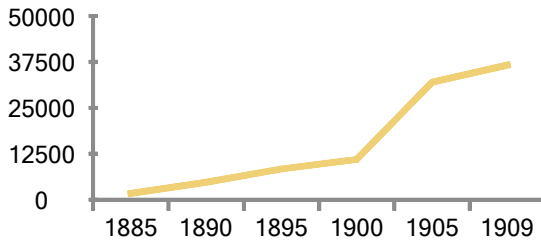
IV. 외래품과 근대 초기 소비문화

근대 초기 조선의 물질문화에 외래품이 미치는 영향은 1890년대보다 1900년대 이후 더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그림 9>는 개항 이후 1883년부터 1909년까지 수입량을 보여주는 표로 전체적으로 수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⁴⁴⁾ 1902년을 기점으로 1904년까지 수입의 폭이 급증하는 것은 아마도 러일전쟁 전후의 전쟁물자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전쟁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1880년대

43) 『동아일보』 1934년 1월 1일자 21면 “조선인상업의 성쇠上” 참조.

44) 송규진, 「개항기의 무역」, 『한국무역의 역사』, 청아출판사, 2010, 481~509쪽; 송규진이 최유길의 논문 (『韓國の貿易動向 1877~1911年 - 輸出入物價指數の推計を中心』, 『アジア經濟』 15-1, 1974)과 조선통감부통계연보 각 년판으로 만든 <조선무역의 추이> 표를 활용하여, 필자가 1883-1909년의 수입액 통계만으로 <그림 9> 그래프를 재구성하였다. 1897년부터 조금씩 늘어나던 수입의 규모가 1900년에 10,000,000엔, 1902년에는 1.5배 상승한 14,696,470엔, 1904년에는 26,805,380엔으로 또 2배 이상 가파르게 상승하여 1907년에 이르면 41,025,523엔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와 1900년대 말의 수입량의 규모를 비교하면 8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개항 이후 30여년 사이에 조선으로 수입되고 있던 외래품, 근대물품의 규모는 기하학적으로 그 수가 늘어났고, 1900년대에 이르면 이러한 수입품이 조선 사람들의 물질문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개항기 수입 규모, 1885-1909 (단위: 천원)

근대 초 대부분의 수입은 일본과 중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수입품의 대부분이 서양 제품이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 최유길⁴⁵⁾이 작성한 국별 수입 비율의 추이를 살펴본 통계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 1882년 이후 미국, 유럽 각국과의 통상조약 체결 이후 이들 국가와의 교역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 통계에서 활용한 공식적인 기록에는 대중무역과 대일무역에 대한 수치만 표기가 되어있다. 송규진은 그 이유를 통계자료가 상품의 생산지나 수출지정지를 표시하지 않고 직접 수입항과 상품을 내보낸 직접 수출항만을 기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⁴⁵⁾ 마찬가지로 미국 선교사들의 경우처럼 개인이 우편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외국 상점에서 물품을 직접 주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선적한 물품이라 할지라

45) 송규진, 앞의 논문, 2010, 501쪽.

도 모든 선박이 상하이나 나가사키 등 중국과 일본의 개항지를 거쳐 제물포로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된 항목으로 분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⁶⁾ 뿐만 아니라, 1877년~1882년까지 일본과의 교역만 진행되었던 시기에도 개항기 조선의 무역액에서 구미산 제품이 일본보다 그 비율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중국 상인, 일본 상인의 중개무역, 간접무역을 통해서 서양의 물품들이 조선에 수입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간접무역의 형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양의 근대 물품이 상해에서 고베로 들어간 다음 다시 고베에서 일본 선박에 실려 조선으로 들어왔다.⁴⁷⁾

근대 초기 유통되기 시작한 외래품은 구미잡화, 화양잡화라는 신조어로 통용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상품은 면제품, 석유, 성냥처럼 상류층과 하류층의 구분 없이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점차 생필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수입품들이다.⁴⁸⁾ 물론 전 지역에 걸쳐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비숍이 1890년대 말 기록하고 있는 것에 따르면 그 즈음, 서울과 평양의 가게에서 성냥이 급속도로 번져 갔고, 낡은 등잔을 사용하거나 값싸고 연기 많은 등유 램프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과 달리 원산 외곽의 소도시에서는 그때까지도 “부싯돌이나 황에 담갔던 나무”로 불을 켜다고 전한다.⁴⁹⁾ 또한, 당시 영국으로부터

46) 이유정, 앞의 논문, 2020.

47) 송규진, 앞의 논문, 2010, 497쪽; 러시아대장성 편, 김병린 역, 앞의 책, 1983, 197~198쪽.

48) 러시아대장성이 기록한 1890년대 말 주요 수입 품목은 면제품, 동과 철과 같은 금속, 견직물, 석유, 소금, 가마니새끼, 성냥, 밀가루, 주류, 염료, 연초, 약품, 설탕, 목재, 석탄, 거울과 유리제품, 일본산 자기제품, 양산이다. 러시아대장성 편, 김병린 역, 앞의 책, 1983, 244~265쪽 참조; 『조선통감부통계연보』에 기록된 1908년 주요 수입상품의 경우도 유사하게 밀가루(0.94%), 소금(1.02%), 함어(소금에 절인 생선, 0.42%), 설탕(1.72%), 청주(1.71%), 맥주(0.91%), 철전광관(0.59%), 퀘조(철도 레일, 2.15%), 철도기관차(1.00%), 철동관(1.44%), 담배(2.57%), 도자기(0.67%), 석탄(3.34%), 목재판(4.07%), 가마니새끼(1.32%), 시멘트(0.57%), 성냥(0.95%)이다. 송규진 앞의 논문, 2010, 528쪽 참조.

수입되는 맨체스터제 표백되지 않은 무명천과 미국산 석유는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고 한다.⁵⁰⁾ 실제로 이러한 수입품을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시전 거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러한 수입품에 노출되어 있었을 것이다. 비숍의 글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 상품의 수요가 시작된 지 13년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조선이 얼마나 외제품을 쓰고 있으며, 부산의 외국 무역이 매우 빠르게 성장되어, 1885년 수출입의 합한 가격이 겨우 77,850파운드에 달했던 것이 1892년에는 346,608파운드에 이르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바래지 않는 셔츠 감, 한랭사, 옥양목, 흰 삼베,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빨간 무명은 조선 사람의 기호를 현혹시키고 있다. 다만 보온이 잘되는 면직 겨울 외투는 외국 모직물에 뒤지지 않아 사실상 수입품이 없다. 가장 놀라운 진보는 1/4분기에 71,000갤런에 이르는 미국의 등유를 수입했다는 사실이다. 음울한 골풀 양초가 등롱에서 어유 램프로 바뀌게 됨으로써 조선의 야간 생활에 큰 변혁을 일으켰다. 성냥은 놀랍게 '유행'하게 되었고 확실하게 '토착화'되었다.⁵¹⁾

섬유제품의 수입액을 1877년과 1909년만 놓고 단순하게 비교해도 면제품의 수요가 30여년 사이에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면제품과 석유는 『독립신문』의 물가 지표의 기준이 될 정도로 1890년대 조선에서는 주요한 생활용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⁵²⁾ 석유의 경우도 일반인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있었는데, 1890년대 말에 이르면 석유 사용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일본식 램프가 거의 모든 집에 비치되어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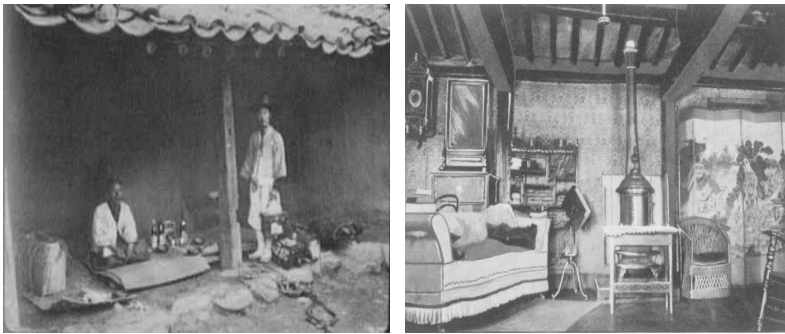
49) I.B.비숍, 신복룡 역, 앞의 책, 2019[1999], 165쪽.

50) G. W. 길모어, 신복룡 역, 『서울풍물지(Korea from its Capital: with a Chapter on Missions)』, 집문당, 2019[1999], 166~167쪽.

51) I.B.비숍, 신복룡 역, 앞의 책, 2019[1999], 14쪽.

52) 『독립신문』 1896년 6월 9일 물가표 참조.

석유는 1886년에 101,207갤런이 수입되다가 1897년에는 그 20배로 증가한 물량이 수입되고 있었다. 물론 수입량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석유를 활용했다는 것은 아니다. 종로 거리 한쪽에서는 근대식 상점에서 성냥과 석유, 등유램프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육조거리와 종각 부근의 교차로에 형성되어 있던 소위 땀감시장에서는 땀감용 잔술가지를 잔뜩 실은 황소를 끌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풍경 또한 여전히 존재했고, 아무리 저렴한 수입 면제품이 들어왔어도, 여전히 양잠과 면화로 실을 만들어 옷을 직접 해서 입는 가정들이 있었다. 그러나 완전히 보편화된 상품은 아니었을지라도 생필품으로서 면제품, 석유, 성냥과 같은 물품이 일상화되어가고 있었고, 개항 후 1880년대에서 1909년에 이르는 기간에 면제품, 석유, 성냥의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수요자가 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림 10, 11> 1895, William Henry Jackson/ 1900년대 초 스코틀랜드인인 Constance Tyler가 한국을 방문하고 남긴 *Koreans at Home*에 수록된 집 안의 내부 사진

이처럼 석유, 면직물과 같은 외래품이 의복이나 주거 양식의 변화를 가져 오기 시작했다면, 밀가루, 설탕, 주류, 담배와 같이 기호품 소비와 식생활

소비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대다수 수입품의 경우가 그렇듯이 이들의 수입량도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일본산 주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여 90,000달러를 상회했다.⁵³⁾ 서양산 주류 중에서는 영국, 독일, 미국산 주류와 프랑스산 포도주의 수입이 1897년에는 55,074달러나 되었다.⁵⁴⁾ 비숍에 따르면 “프랑스제 시계와 독일제 도금품에 대한 기호와 더불어 외제 술에 대한 애호가 젊은 양반들 사이에서 다소간 유행”되어가고 있었다고 한다.⁵⁵⁾ <그림 10>을 보면 주점 혹은 일반 서민의 가정으로 보이는 집에 맥주 혹은 포도주로 보이는 술이 상에 여러 병 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드시 외국산 주류가 상류층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개화기에는 껌련도 이미 여러 계층 사이에서 널리 보편화되어 있었다. 이영학에 따르면 1890년대 전반에는 도시의 조선인 상류층을 중심으로 외국제조연초가 소비되었지만, 1890년대 후반에는 중류 혹은 하류 계층까지도 껌련을 소비하게 되었다고 한다.⁵⁶⁾ 조선산 연초 이외에도 외국산 연초제품의 수입은 1891년 이후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897년에는 그 수입액이 89,209달러였다. 초기에 연초제품은 미국에서만 수입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산 담배는 중상류층, 일본산 담배는 하층계급의 수요를

53) 러시아대장성 편, 김병린 역, 1983, 257쪽.

54) 러시아대장성 편, 김병린 역, 1983, 262쪽. 조선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세창양행과 타운센드상점과 같은 독일과 미국의 무역상의 경우 직접 왕실이나 정부 측과 교역을 하면서 “무기, 개틀링 총”을 들여오기도 했지만 서양가구, 샴페인과 기타 주류처럼 “일반 백성에게는 매우 고가”인 물품들을 들여오기도 했다. 외국산 주류의 경우는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소비할 수 없었겠지만, 그에 비해 당시 많은 수입이 이루어진 것을 러시아대장성은 유럽 제품을 모조한 일본제품의 수입이 증가한 데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당시 일본은 여러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했는데, 포도주를 꿀, 사탕, 향료로 만들어 파는 기술을 갖고 있어 가짜 상품에 해당하는 외국산 상표를 붙여 조선으로 수입하여 판매하였다고 한다. 외국인들 가운데 구매자가 없을 정도로 그 품질은 불량하였지만 조선인들은 즐겨 마셨다고 전한다.

55) I.B.비숍, 신복룡 역, 앞의 책, 2019[1999], 85쪽.

56) 이영학, 『한국근대연초산업연구』, 신서원, 2013, 105쪽.

충족시키고 있었다.⁵⁷⁾

1909년과 1910년이 되면 신문에 조선에 외래품의 소비 증가로 말미암아 변화하고 있던 조선의 소비문화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실리게 된다. 다음은 1909년과 1910년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논설의 일부이다.

경제라는 거슨 국민의 죽고 사는 기관이거늘 지금에 국민이 쓰는 거슬
싱각건터 당석냥은 어대셔 오며 석유는 어디셔 오며 권연은 어디셔 오며
양혜는 어디셔 오며 죠희는 어디셔 오며 연필은 어디셔오며 동털은 어디셔
오며 차는 어디셔 오며 모직은 어디셔 오며 포복은 어디셔 오며 사그는
어디셔 오논고. 이거시 모다 왜국 물건이 아니면 서양 물건이며 쏘 회관
흔나만 설립하면 차관과 고의가 무비 진고기시 것이며 학교 흔나만 창설하면
시종과 석판이 모다 대판에서 문든 것이 아니면 신호에서 제조흔 것이라
전국 안에 모도 모와도 얼마가 못되는 잔전 푼이 날마다 외국으로 다라나니
엇지 놀납지 아니할 바 리오 그럼으로 더 일인도 한국인의 외국 물건을
넘어 즐겨 흔다고 죠롱흙이니.⁵⁸⁾

지금에 외국 물화를 수입흔는 시디를 당혀 석유가 나뭇 씨스갑시 날마다
천혀지고 석탄이 나뭇 나무스갑시 날마다 헐혀지며 왜실 양목 즈봉침
당석류황 양축 왜적 포도주 맥주등과 그외에 각종 제조품과 기계와 식물등이
날마다 수입되난디로 본국에서나는 물품은 그갑시 날마다 썩러지며 상업과
공업의 진보난 오히려 심히 유치혀 사름마다 생활의 곤간흙을 울고지닌
디 줄디에 이런 잡세명목을 날마다 증가하니 인민의 도탄에썩짐이 전일에
탐관오리가 학정하던 시디보다도 더욱 심혀⁵⁹⁾

이 글에 따르면, 당시 소비되고 있던 외래 물품인 성냥, 석유, 권연, 서양

57) 러시아대장성 편, 김병린 역, 1983, 263쪽.

58) “례산에서 온 사름의 말을 기록흙”,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9.1.6.

59) “디방세와 민정”,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10.1.25.

신발, 종이, 연필, 구리와 철, 차, 모직, 포목, 서양 실, 재봉틀, 양초, 포도주, 맥주 외에도 각종 제조품과 기계가 수입되어 소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언급하며, 사람들이 “외국 물건을 너무 즐겨”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 물론 모든 품목에 대한 소비가 전 계층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중상류층 가정에서는 광범위하게 외래품이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길모어가 『서울풍문지』에서 “수도에 거주하는 몇몇 부자들”이 “외국인의 집에서 본 스프링 침대에 눕을 빼앗겨 자신이 사용하려고 그와 같은 침대를 구입하였다”하고, 외래품을 파는 상점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빠꾸기 시계”가 실제로 많은 조선의 가정에서 눈에 띈다고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상류층 가정을 중심으로 외래품 소비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다.⁶⁰⁾ 즉 <그림 11>에서 보는 한옥 건축에 서구식 실내를 꾸미는 것은 단순히 서양인 거주지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의 집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비숍도 수입품 중에서 조선 사람들의 기호품으로 “수십 개의 빠꾸기시계가 상점에 진열되어 있으며, 이익을 많이 남기고 팔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일부 조선의 가정에서 유행처럼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상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길모어에 따르면, 조선 사람은 “외국인의 가정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온갖 이기와 값비싼 사치품을 보고 감탄”했다고 전하는데, 이런 감탄은 실제로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프랑스제 시계, 독일산 도금제품, 미국산 재봉틀 등의 소비로 이어지고 있었다.⁶¹⁾

요약하면, 외래품의 유입으로 인한 조선 사회 물질문화의 변화가 중상류층에 국한되어 있었을 수 있지만, 서구 산업화에 따른 물질혁명에 의한 변화가 서서히 조선 사회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0) G. W. 길모어, 신복룡 역. 2019[1999], 185쪽.

61) G. W. 길모어, 신복룡 역. 2019[1999], 185쪽, 239쪽; 이유허, 「물질문화를 통해 살펴본 근대초기 조선의 미국: 근대 신문광고 면에 나타난 미국 제품을 중심으로 (1890-1910)」, 『미국학논집』 52-3, 2020, 117~141쪽.

외래품으로 인해 조선의 의복과 주거 생활양식 전반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을 볼 때, 근대 초기 외래품의 사용이 반드시 중상류층에게만 국한되었다고 일반화하기 보다는 외래품을 소비할 수 없거나 소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근대물품, 개화물품이라는 새로운 물질문화에 대한 인식이 서울 상점 거리나 근대 신문의 광고 등을 매개로 확산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석유, 성냥, 면직물과 같은 생활의 편리, 기능성을 고려한 일상생활 용품과 같은 새로운 물질문화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형성되어있었으며, 일부 중상류층의 경우에는 일부 고가 외래품에 부여된 근대적 의미를 소비하는, 즉 근대성의 척도로서 서구 외래품을 소비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IV. 나가며

이 논문에서는 근대 초기 외래품의 현황과 이러한 외래품의 유입으로 달라진 조선 사회 상점의 변화 양상과 소비문화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개항 이후 조선의 시장은 전통적 시전(市廛)의 형태에서 점차 근대적 상점(商店)으로의 변화를 겪게 된다. 조선을 방문했던 여러 외국인의 글에는 당시 변화하고 있던 조선 시장의 모습, 그리고 외래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던 사회상에 대한 묘사가 다수 기록되어 있다. 개항 이후 30여년이 채 지나지 않았던 1900년대에 이미 외래품 수입이 급증했고, 사람들은 단순히 사물의 기능성을 추구하는 소비가 아니라 사물에 부여된 ‘근대성’의 의미를 함께 소비하게 되었으며, 서구 물질문화에 대한 동경이 서서히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근대 초기 변화하고 있던 조선 상점의 판매 품목과 소비문화의 한 단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논문은 간판도 광고도 없는 종로 거리의 전(廛), 전방(廛房) 혹은 점방(店房)이라고 불리는 곳이 1900년대로 넘어가면서 근대 상점(商店)의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 점에 주목하였고, 주요 외래품들이 수입, 유통, 판매,

소비되고 있던 상황을 여러 기록을 통해 재구성해보았다. 특히 당시 조선의 시장에 토산품뿐만 아니라 구미 잡화, 화양 잡화라고 통칭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외래품을 취급하는 상점이 나타났다. 근대화와 산업화의 시작으로 교역의 형태가 전 세계를 거쳐 이루어지면서 타지의 물품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판로와 경로가 가능해지면서, 근대적 경제, 유통구조의 변화에 따라 세계 곳곳에 나타나는 잡화상점의 형태가 조선에도 들어서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전방 형태가 아닌 근대식 개념의 상점이 나타나며 여기서 판매되고 있던 외래품의 품목이나, 여러 물품을 함께 취급하는 근대적 상점의 초기 모습을 근대 신문 광고를 통해 확인해보았다. 근대 초기는 이러한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던 외래품이 근대 매체의 노출을 통해 서서히 대중에게 각인되면서 새로운 근대 물질문화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대한매일신보(국한문)』

『독립신문』

『동아일보』

『제국신문』

『황성신문』

The Independent

국사편찬위원회, 『장사에서 마트까지 근현대 시장 경제의 변천』, 두산동아, 2007.

김미선, 「1950~1960년대 여성의 소비문화와 명동(明洞)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 양장점과 미장원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46, 2012, 59~101쪽.

김미성, 『조선후기 면주전과 명주 생산, 유통구조』,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2017.

김병린 역, 『구한말의 사회와 경제』, 유평출판사, 1983.

김순영, 「한국 근대 양복점의 판매 물품과 생산 및 판매 주체」,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7-5, 2017, 89~107쪽.

김연옥, 「남대문로의 성격과 그 기능 변천에 관한 연구, 1876-1945: 물리적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9, 2002, 101~160쪽.

김윤선, 「근대 여성 매체 『신여성』에 나타난 여성의 소비문화」, 『동양학』 45, 2009, 41~62쪽.

김정인, 「개화기 서울에서 양식적 건축 요소를 차용한 절충적 한옥의 입면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3, 2015, 11~24쪽.

김태영, 「구한말 외인건축술의 전래과정 연구」, 『건축역사연구』 1-1, 1992, 117~128쪽.

W.R. 칼스, 신복룡 역, 『조선풍물지』, 집문당, 2019[1999].

박도 엮음, 『개화기와 대한제국: 1876-1910』, 눈빛, 2012.

박상하, 『한국기업의 성장 100년사』, 경영자료사, 2013.

손정숙, 「일제시기 백화점과 일상소비문화」, 『동양고전연구』 25, 2006, 237~260

쪽.

- 송기호, 『농사짓고 장사하고: 생업과 행정』,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 송기호, 「시전과 장사」, 『문화·예술(역사이야기)』 60-12, 2012, 82~90쪽.
- 송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서양인이 본 근대전환기 한국, 한국인: 영천 강정훈 기증문고를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2.
- 신인섭, 서범석, 『한국광고사』, 나남출판, 1986.
- 신인섭 외, 『한국옥외광고사』, 한경사, 2020.
- I.B. 비숍, 신복룡 역,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2019[1999].
- 양상현, 유영미,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사진: 윌리엄 그리피스, 럿거스대학교 도서관 특별컬렉션』, 눈빛, 2019.
- 우라카와 가즈야 엮음, 박호원, 임유희, 이에나가 유코 역, 『그림엽서로 보는 근대조선 1-7권』, 민속원, 2017.
- 이가연, 「개항장 부산 일본 거류지의 소비공간과 소비문화」, 『항도부산』 39, 2020, 79~106쪽.
- 이돈수, 이순우, 『꼬레아 에 꼬레아니:100년 전 서울 주재 이탈리아 외교관 카를로 로제티의 대한제국 견문기 사진해설판』, 하늘재, 2009.
- 이두원, 김은희, 「한국근대 소비문화 변천사 연구: 근대신문광고(1886-1949)에 나타난 소비가치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15-3, 2004, 207~234쪽.
- 이연경, 『한성부의 '작은 일본': 진고개 혹은 본정』, 시공문화사, 2015.
- 이영학, 「조선후기 담배의 급속한 보급과 사회적 영향」, 『역사문화연구』 22, 2005, 55~86쪽.
- 이영학, 『한국근대연초산업연구』, 신서원, 2013.
- 이유정, 「물질문화를 통해 살펴본 근대초기 조선의 미국: 근대 신문 광고 면에 나타난 미국 제품을 중심으로 (1890-1910)」, 『미국학논집』 52-3, 2020, 117~141쪽.
- 이유정, 「1890년대 미국인의 조선에서의 '집'(Home) 만들기」, 『미국사연구』 51, 2020, 177~218쪽.
- 임경희, 「'일신상점' 자료를 통해서 본 20세기 농촌소상인의 변화」, 『담론201』 18-2, 2015, 93~111쪽.

- 장 보드리야르,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문예출판사, 1992.
- 전우용, 『한국 회사의 탄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정인숙, 「조선후기 도시의 발달과 여성의 소비문화에 대한 담론의 성격」, 『한국 고전여성문학연구』 24, 2012, 221~258쪽.
- 조은주, 「경성부 남대문통과 태평동의 이층한옥상가에 관한 연구」, 『서울학연구』 30, 2008, 99~138쪽.
- 주승재, 주경식, 「한국 약사제도의 변천」, 『약학회지』 58-6, 2014, 405~412쪽.
- G. W. 길모어, 신복룡 역, 『서울풍물지(Korea from its Capital: with a Chapter on Missions)』, 집문당, 2019[1999].
- 최석로, 『민족의 사진첩 IV. 개화기의 생활과 풍속』, 서문당, 2007.
- 하여주, 「17~18세기 조선 여성의 소비 규범과 소비욕망—新婦 머리 모양[加髻]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2, 2015, 195~227쪽.

English, Linda, *By All Accounts: General Stores and Community Life in Texas and Indian Territory*, Oklahoma: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2013.

그림 출처

- <그림 1> 꼬레아 꼬레아니, “바구니가게와 철물점” ii-179, 208쪽
- <그림 2> 꼬레아 꼬레아니, “서울의 옹기장수” I-158, 197쪽
- <그림 3> 개화기의 생활과 풍속, “유기전” 90쪽
- <그림 4> 꼬레아 에 꼬레아니 II-034 199쪽
- <그림 5> 개화기의 생활과 풍속 “잡화전” 91쪽
- <그림 6> 꼬레아 꼬레아니 “서울의 잡화점” II-183, 209쪽
- <그림 7> 개화기 생활과 풍속, “잡화전이라는 이름의 난전” 135쪽
- <그림 8> 개화기 생활과 풍속, “장터의 노점” 91쪽
- <그림 10> 박도 엮음. 주막에서 만난 두 남자, 1895. William Henry Jackson, 297쪽
- <그림 11> Constance Tyler, *Koreans at Home*에 수록된 집 안의 내부 사진

Abstract

FROM TRADITIONAL MARKET STREETS TO MODERN
GENERAL STORES : CHANGING ASPECTS OF EARLY
MODERN SHOPS IN KOREA, 1890-1910

LEE YUJUNG (LEE, YU JUNG)

This article considers the changing patterns of consumption and the increasing use of foreign goods during the period from 1890 to 1910 in Korea. After opening ports in Korea to Japan and Western countries at the end of the late nineteenth century, people began to witness that Korean market gradually changed from the form of traditional street market to the one of modern stores, which were similar to the western style of general stores. By the influx of foreign goods, Korean society underwent transformation in terms that not only the external architectural form of the market street, but also the items sold here. The rapid increase of foreign goods led to the changes of consumption pattern and also reflected that Korean society were moving toward the modern consumer society. This article explores the ways in which the modern conception of stores appeared in Korea at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nd the early twentieth century. In the traditional market street in Chongno, Seoul, there were no such things as signboards of the store or advertisements. However, the traditional store began to transform itself to a modern store in the 1900s.

한국문화연구 39

Key Words : general store, 1890-1910, foreign products, consumer culture, Korean material culture